

〈주요 용어〉: 제주도, 권당, 호적중초, 혼인 연망, 부처사돈, 결혼

제주도 마을의 호적중초에 나타난 권당관계의 변화¹⁾

김창민*

〈국문초록〉

이 연구는 시계열적으로 권당관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6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나타난 혼인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권당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이다.

권당은 혈통과 혼인으로 맺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마다 권당의 범위는 서로 다르다. 마을 내 정치권력의 지형과 영향력의 범위는 권당관계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권당관계의 망을 분석하면 누가 사회관계의 중심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밭 마을은 1800년대 중반 이후 인구 이동이 매우 활발하였다. 호적중초를 통해서 보면 기존의 가구가 이주해 나가고 새로운 가구가 이주해 오는 빈도가 매우

* 전주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cmkim@jj.ac.kr

1)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27-A00117).

빈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구성원들은 권당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인구의 이동이 권당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구의 이동과 세대의 교체로 권당관계망은 변화되었다. 권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은 인구 이동과 세대의 교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권당관계의 변화에 의하여 사회관계의 중심이 변화되었다. 1864년의 달밭 마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중심에는 풍천 임씨들이 있었다. 그리고 고부 이씨들은 풍천 임씨와의 권당관계를 매개로 마을로 이주하였고 마을 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풍천 임씨들과 겹사돈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1894년에는 마을 사회관계망의 중심이 고부 이씨로 변화되었다. 고부 이씨들은 혼인을 통하여 권당관계를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부씨사돈을 활용하여 사돈관계의 범위도 확장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고부 이씨들이 달밭마을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권당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1. 머리글

권당이 제주도 친족의 핵심적 문화요소라는 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전경수 1983; 김혜숙 1999; 김창민 1992; 2010a, 2010b). 제주도의 권당은 부계혈통집단과 달리 개인의 친족관계망이며, 부변친 뿐 아니라 모변친과 처변친²⁾까지 포함하고 있다. 통상 권당은 성(姓)권당과 외(外)권당 그리고 처(妻)권당 또는 시(媿)권당으로 구분된다.³⁾ 성

- 2) 부변친과 모변친 그리고 처변친이란 개념은 출계 개념이 아니라 혼인 연방 중심으로 친척을 인식하는 개념이다. 통상 외친 또는 처가친이란 개념은 외가의 부계혈통집단과 처가의 부계혈통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하는 모변친과 처변친은 외사촌의 고종사촌과 이종사촌, 처남의 이종사촌과 고종사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모변친과 처변친은 어머니 또는 아내를 통하여 맺어진 모든 친척을 의미한다.
- 3) 김혜숙(1999: 427)에 의하면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성권당에 속한다. 그리고 모든 부부는 동일한 범주의 권당에 속한다. 이는 권당이 개인을 중심으로

켤당은 아버지로 연결된 모든 친족과 친척을 말하며, 외켤당은 어머니를 통해 연결된 모든 친척을 말한다. 또한 처켤당과 시켤당은 각각 아내와 남편을 통해 맺어지게 된 친척을 의미한다. 켤당은 부계 친족뿐만 아니라 인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친족 또는 인척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 따라서 전통적인 친족집단을 연구하는 방식으로는 켤당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친족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다. 하나는 출계를 중심으로 친족집단을 연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혼인을 중심으로 친족 연망을 연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친족 연구는 주로 전자에 집중되어 왔으며 친족 연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출계를 중심의 친족 연구가 친족을 집단(kin group)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라면 혼인 연망에 대한 연구는 친족을 범주(category)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키징(Keesing)은 친족을 문화적 범주와 사회적 집단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Keesing 1975: 9-11). 그는 의미 있고 공통된 사회적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범주로 개념화한 반면 구성원들이 규정된 역할을 가지고 조직화된 경우를 집단으로 개념화하였다. 이 구분에 의하면 혼인 연망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따라서 제주도의 켤당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범주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문화적 범주인 켤당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친족관계망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을의 규모가 읍지부에 비해 클 뿐 아니라 마을 내 혼이 많은 제주도에서 개인의 친족관계망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방대한 작업을 요구한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이 적은 집단이 연구구를 위해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마을의 형성 초기에 기록된 호적증

형성된 관계이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에는 집단 개념도 매개되어 있음
의미한다.

초는 켤당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남서부 마을에 집중적으로 남아 있는⁴⁾ 호적중초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자료이다. 호적중초에는 가구주의 직역과 나이, 이름 그리고 부계 4대조와 장인 그리고 어머니의 3대조에 이르는 친족관계와 가구주의 배우자, 아들의 배우자, 아들의 장인 등과 같은 혼인관계의 정보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친족 및 친척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호적중초가 자료적 가치를 인정 받은 이후 역사학, 사회학 분야에서 호적중초는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이들 연구는 주로 당시의 신분 구조(김동전 1995; 정수환 2003), 혼인관계(권오정 2003), 직역(허원영 2003) 등을 분석하였다. 정수환(2003)은 가솔(假率)이라는 신분이 군관 집안에서 배출되며 가솔의 나이가 많아지면 다시 군관 직위를 가진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제주도의 가솔은 일정한 신분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권오정(2003)은 제주도 한 마을의 호적중초에서 혼인관계를 분석하여 마을 내혼이 많다는 점과 신분제 철폐 이전에 노비였던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는 통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혼인이 신분 차별의 기제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허원형(2003)은 시기에 따라 직역이 변동하고 있는 현상을 밝혀 내고 이러한 변화가 부세의 부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호적중초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료 분석에 머무르고 있으며 마을 내의 사회관계와 호적중초의 내용을 연결시킨 맥락적 분석이 부족하여 마을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창민 2010a: 197).

이런 상황에서 김창민의 연구(2010a, 2010b)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4) 호적중초는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작성되었으나 보관된 양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호적이나 호적중초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호적중초가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것도 대정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김동전 2008 참고).

호적중초를 통하여 19세기 제주도 마을의 가구와 가족의 유형을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2010b) 혼인관계망을 분석하여 권당 구조를 파악하였다(2010a). 그는 사료 비판을 통하여 호적중초의 가구 형태가 결합가족 또는 직계가족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핵가족 형태가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밝혀 핵가족이라는 지배적인 제주도의 가족 유형이 18세기 까지 거슬러 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김창민 2010b). 또한 그는 조사 마을에서 가장 유력한 두 사람이 중복되는 권당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마을 권당관계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권당이 단순히 혼인 연망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자원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창민 2010a). 그의 연구는 19세기 후반 제주도의 권당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지만 공시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가지고 있다. 즉, 권당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혼인관계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권당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며 인구 이동에 따라 마을 내 혼인 연망에 변화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정치적 과정에 의해 의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권당관계의 변화는 마을 내 위세와 영향력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혼인관계망을 이용한다. 유력한 사람과 혼인을 통하여 권당관계를 맺거나 권당관계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그 예이다. 즉, 정치적 자원으로써 권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권당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권당관계에 대한 시계열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시계열적으로 권당관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6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나타난 혼인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권당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으

며 그 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1860년대와 1890년대의 마을 내 혼인 연망과 권당관계를 비교할 것이며 권당관계를 활용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분석의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권당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약 30년에 걸친 변화만 추적하였다.

2. 달밭 마을 호적중초의 성격

호적중초의 자료적 특성에 대해서는 이창기의 연구(1999)와 김창민의 연구(2010a)에서 지적된 바 있다. 통상 호적중초는 호구의 실제 수를 정확하게 밝히는 핵법(覈法)이 아니라 중앙에서 각 군현에 배정한 호구에 맞추어 호적을 작성하는 방식인 관법(寬法)에 의해 기록되어 실제 호구와 기록된 호구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⁵⁾ 매3년을 식년으로 하여 호구를 작성함으로써 호적중초 자료가 3년 단위로 만들어 졌다는 점 그리고 1896년을 기점으로 호구 작성방법이 변화되었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호적중초를 통한 사회문화현상의 분석에는 사료 비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의 사회적 상황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달밭 마을의 호적중초 역시 이러한 일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달밭 마을의 호적중초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⁶⁾ 첫째, 호적중초의 작성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다.

5) 핵법과 관법의 차이에 관해서는 이창기(1999: 232-233), 김창민(2010a: 201)을 참고.

6) 조사지 호적중초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김창민(2010a)을 참고.

달밭 마을의 첫 번째 호적중초는 1861년에 작성된 것이며 마지막 호적중초는 1909년에 작성되어 그 기간이 48년에 불과하다. 이는 달밭 마을이 1800년대 중반에 독립된 마을로 분리되어 마을의 역사가 짧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호적중초가 작성된 시기는 마을의 형성 초기로서 마을의 규모가 작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의 규모가 작다는 점은 호적중초를 통한 권당관계 분석에는 유리하지만 호적중초의 작성기간이 짧다는 것은 시계열적 분석에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 특성은 멸실된 호적중초가 많다는 점이다. 달밭 마을의 호적중초는 두 부분에서 멸실되었다. 하나는 1867년 호적중초와 1891년 호적중초 사이의 호적중초가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03년 호적중초와 1909년 호적중초 사이의 호적중초가 멸실되었다는 점이다. 1867년부터 1891년 사이의 호적중초가 멸실된 것은 마을 분리와 관련이 있다. 즉, 달밭마을에 보관되어 있는 호적중초는 1891년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그 이전의 호적중초는 이웃 마을인 도순리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는 달밭 마을이 도순리로부터 분리 독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을의 형성 초기에는 마을과 관련된 문서가 도순리에 보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도순리의 입장에서는 이웃 마을의 호적중초를 보관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 결과 1891년 이전의 호적중초가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03년과 1909년 사이의 호적중초가 남아 있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 호적중초가 1903년까지만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작성되었으나 멸실되었는지 필자는 알지 못한다. 다만 1909년 호적중초는 민적법의 제정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호적중초의 멸실은 가구와 호구 그리고 권당관계 분석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지만 남은 자료로 어느 정도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당관계의 분석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호적중초를 통해서 보면 달밭 마을은 몇 가지 인구학적 특성을 보인다. 우선 달밭 마을은 형성 초기부터 혼성 마을이었다는 점이다. 가구 수나 인구수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친족이 없는 달밭 마을에서 혼인관계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 혼인관계의 중심에는 풍천 임씨와 고부 이씨가 있었다. 마을의 형성 초기에는 풍천 임씨 가구가 다수 마을에 거주하였으며 권당관계의 중심에 있었다. 한편 고부 이씨들은 풍천 임씨와의 권당관계를 매개로 마을에 이주하였으며 점차 마을에 거주하는 친족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을 내 혼인관계를 확장하여 결국에는 마을 권당관계의 중심을 차지하였으며 풍천 임씨의 지위를 대체하게 되었다.

3. 인구 및 가구의 변화

호적중초에 나타난 인구와 가구의 수는 해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상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그 차이는 일관된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⁷⁾ 따라서 기록된 자료와 실제 현상 사이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고려하여 호적중초 자료를 해석하고 그 변화의 추이를 보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실재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가구의 증가가 분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가구의 유입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거주하는 가구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동일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가를 밝혀 보는 것 등은 마을의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호적중초를 통해서 본 달밭 마을의 가구 수의 변화는 <표 1>과 같

7) 호적중초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상황과의 차이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인구는 20세 이하 남자에게서 과도한 누락이 일어나며, 가구는 합호하는 방법으로 그 수를 줄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창민(2010b)을 참고.

다. 이 표는 가구의 변화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 준다. 첫째는 1866년과 1891년 사이에 전출 가구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즉, 1866년에 있던 21가구 중 14가구는 1891년 호적중초에서는 사라졌으며 대신 13가구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25년 사이에 전체 가구의 약 70%가 다른 가구로 대체된 것이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인구 이동이 상당히 심하여서 마을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힘들었음을 의미한다.

호적중초에서 사라진 14가구 중 8가구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권당관계를 맺고 있던 가구였으며 6가구는 권당관계가 없는 독립 가구였다. 타 지역으로 이주한 8가구는 대부분 풍천 임씨 및 고부 이씨들의 딸과 혼인한 사위들로서 이들에게 풍천 임씨 및 고부 이씨들은 처권당에 해당하였다. 단편적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처권당은 상대적으로 성권당에 비해 결속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특징은 1894년과 1897년 사이와 1903년과 1909년 사이에 가구의 수가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이 두 기간 동안 인구는 각각 172명에서 197명으로 그리고 195명에서 229명으로 증가하여 큰 변화가 없는 반면(김창민 2010b: 376 참고) 가구 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증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호적 편제상의 변화에 기인한다. 즉, 1896년에 호구조사방법이 변화되어 호의 기준이 실제 거주단위로 변경되었다. 즉, 이전에는 하나의 호에 결혼한 아들들의 가족이나 노비들 그리고 권당 가족까지 포함시켰지만 호적 작성방법이 변경된 이후에는 이를 모두 분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호적 작성에서는 이 원칙이 엄밀하게 지켜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김창민(2010b)은 실제 호적중초의 분석을 통하여 호적 작성방법이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장남 가족을 부모와 하나의 호로 편제하거나 권당이나 고공을 포함하여 하나의 가구로 편제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보여 줌으로써 호적 작성방법의 변화가 결합가족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된 반면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7년의 가구 수 증가는 호적 작성방법의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표 1〉 연도별 가구 수의 변화

	1861	1863	1866	1891	1894	1897	1898	1899	1900	1901	1903	1909
총 가구 수	16	17	21	20	27	51	49	48	48	48	46	74
이전 연도 가구 수		17	17	21	20	27	51	49	48	48	48	46
전출 가구 수		0	0	14	1	1	3	2	1	0	2	12
증가 가구 수		1	4	13	8	25	1	1	1	0	0	40

1909년의 가구 수 증가의 원인은 핵가족 및 부부 가족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1909년 74가구 중 핵가족은 45가구로 전체의 61%에 해당한다. 또한 자녀 없는 부부가족은 28가구로서 전체의 38%에 해당한다. 핵가족의 증가는 그 이전까지 직계가족 또는 결합가족으로 편제되었던 가구가 핵가족으로 분리되어 가구 수가 증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3년에 비해 증가한 40가구 중 10가구가 분가에 의한 증가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전입한 가구는 총 30가구였다. 전입 가구의 증가는 가구 수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전입 가구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부부 가족의 수가 많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부부 가구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은 이 시기의 호적 조사에서는 인구의 누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실제 이 시기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20세 이하의 연령층이 비정상적으로 적어서(김창민 2010b: 378-379 참고)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표 2〉 증가 가구의 원인별 가구 수

	1863	1866	1891	1894	1897	1898	1899	1900	1901	1903	1909
증가 가구 수	1	4	13	8	25	1	1	1	0	0	40
독립 전입	0	4	11	7	20	1	1	0	0	0	27
친족 전입	1	0	2	0	2	0	0	1	0	0	3
혼인 전입	0	0	0	1	0	0	0	0	0	0	0
분가	0	0	0	0	3	0	0	0	0	0	10

한편, 〈표 2〉는 연도별 가구의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표 2〉는 가구 수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독립 전입이며, 다음이 분가 그리고 나머지는 친족관계나 혼인을 매개로 한 전입임을 보여 준다. 특히 가구 수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1897년과 1909년의 경우에 이런 경향이 잘 나타난다. 1897년의 경우 증가한 25가구 중 독립 전입이 20가구이며, 1909년의 경우에도 증가한 40가구 중 독립 전입이 27가구였다. 이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제주도의 인구 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호적중초에 나타난 달밭 마을의 가구 변화는 호적중초가 작성되었던 1860년대부터 1900년대 사이에 인구 이동이 매우 많았음을 보여 준다.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마을 사람과의 켤당관계가 없었거나 처켤당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며 상대적으로 성켤당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은 마을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가구의 증가 원인은 새로운 가구의 유입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분가도 가구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달밭 마을은 켤당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가구와 주변을 이루는 가구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4. 켤당관계의 변화

켤당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친족 범주의 개념이다. 즉, 켤당은 성켤당과 외켤당 그리고 처켤당 또는 시켤당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켤당의 범주가 달라진다. 제주도의 마을은 마을 내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마을 내에서 켤당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개인의 켤당관계는 개인적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회적 연망을 구성하게 되며 이 연망이 마을의 결속력과 통합성을 높이는 문화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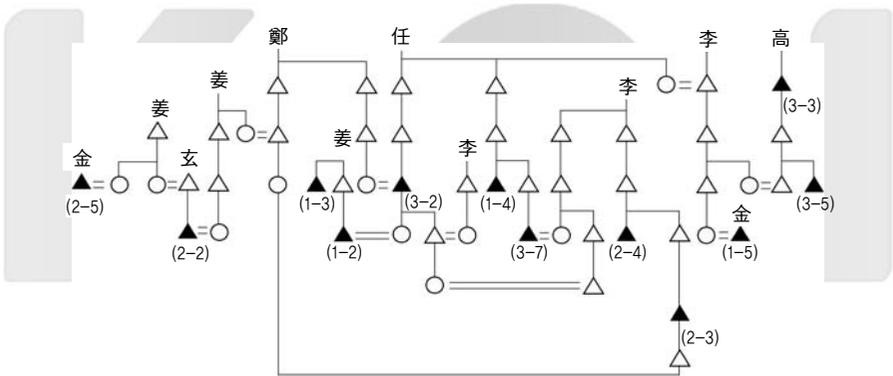
한편 마을단위에서 보면 켤당을 통한 사회적 연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새로운 혼인관계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켤당관계가 형성되게 되며 이 새로운 켤당관계는 사회적 연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결혼과 사회적 연망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달밭 마을의 경우에도 개인의 켤당관계 변화는 마을의 사회적 연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연망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하나는 결혼이다. 새로운 결혼은 새로운 켤당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연망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원인은 인구 이동이다. 기존의 켤당관계에 있던 사람이 외부로 이주하게 되면 마을 구성원 사이의 연망관계가 변화하게 되며 켤당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을로 이주하게 되면 역시 사회적 연망에 변화를 주게 된다.

1864년의 켤당관계를 보여 주는 [그림 1]과 1894년의 켤당관계를 보여 주는 [그림 2]는 달밭 마을에서 켤당관계와 사회적 연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 준다.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64년 달밭

8) 1864년 그림에서 (2-3)이라고 표시된 것은 2통 3호의 호주라는 의미이다. 1894년의 그림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구주를 표시할 경우 연도에서 혼란이 생길 것이므로 A, B, C방식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두 그림에서 검은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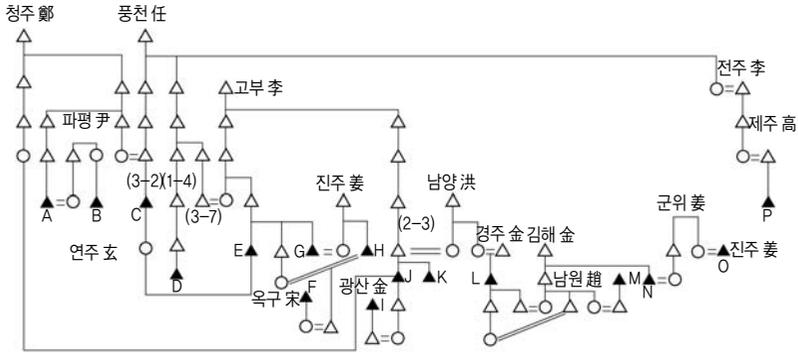
마을은 총 17가구 중 12가구가 권당관계를 매개로 하나의 사회적 연망으로 얽혀 있었다. [그림 1]에서 (2-5)는 (2-2)의 이모부로서 외권당에 해당한다. (1-3)과 (3-2)는 조카와 딸이 결혼함으로써 서로 사돈관계⁹⁾이지만 (1-2)는 (3-2)의 사위로서 서로 권당이 된다. (3-2)와 (1-4) 그리고 (3-7)은 같은 성권당이다. 그리고 (2-4)는 (3-7)의 6촌 처남으로서 처권당에 해당하며 이로써 모든 임씨는 (2-4)의 사돈이 된다. (2-4)와 (2-3)은 서로 성권당이며, (2-3)은 (3-2)의 6촌 동서의 아버지로서 처권당이 된다. 한편 (1-4)와 (3-7)을 비롯한 모든 임씨들은 넓은 의미에서 (1-5)의 처권당이 되며 (3-5) 역시 (1-5)의 처권당이 된다.



[그림 1] 1864년 달밭 마을의 권당관계¹⁰⁾

삼각형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호주이다.

- 9) 제주도에서 사돈과 권당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다. 흔히 '사돈 아니면 문밖 권당'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제주 사람들의 사회관계는 사돈과 권당으로 요약된다. 사돈과 권당은 모두 혼인을 매개로 이루어진 관계이지만 분석적인 차원에서 보면 양자는 구별된다. 즉, 자신보다 아랫 세대에서 혼인을 하여 맺어진 관계는 사돈, 자기와 동일 세대 또는 윗세대에서 결혼하여 맺어진 관계는 권당이다.
- 10) 이 그림은 이미 발표된 논문(김창민 2010a: 206)에서 두 그림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한 것이다. 권당관계의 변화를 논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재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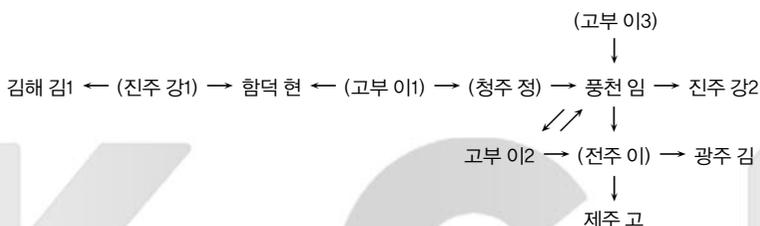
[그림 2] 1894년 달밭 마을의 켤당관계

한편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894년에는 총 27가구 중 16가구가 켤당관계를 매개로 한 사회적 연망을 구성하고 있었다. B는 A의 처켤당에 해당하며 A는 C의 외육촌으로서 외켤당에 해당한다. 그리고 C와 D는 같은 풍천 임씨이므로 성켤당이다. 같은 맥락에서 E와 G, J, K는 같은 고부 이씨로서 성켤당이다. 한편 C와 D는 E와 G의 고모부 집안사람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켤당이라고 할 수 있다. H는 G의 처남이므로 처켤당에 해당하며 E는 H의 사돈이다. F와 H 역시 사돈이다. J는 I와 사돈관계에 있으며, J, K와 L은 이종사촌 간으로 서로 외켤당이다. 그리고 L의 아들과 N의 질녀가 결혼하였으므로 둘은 사돈관계이며, M의 아들과 N의 질녀도 결혼하였기 때문에 둘은 사돈이다. O는 N의 처켤당이며 C와 D는 P의 넓은 의미에서 외켤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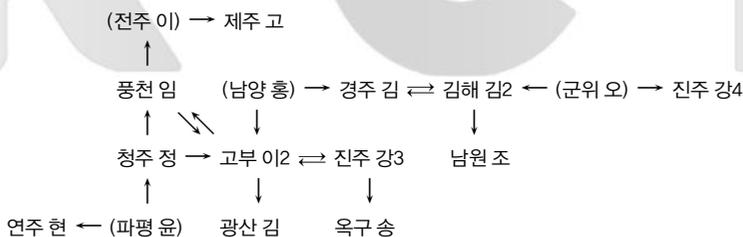
30년의 차이를 둔 [그림 1]과 [그림 2]의 사회적 연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1]의 가구 중 (2-5)와 (2-2) 그리고 (1-3)과 (1-2) 그리고 (2-4)와 (1-5)는 [그림 2]에서 사라지고 대신 E, F, G, I, L, M, N, O는 새롭게 등장한다. 이는 인구 이동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2) 대신 그 아들인 C와 (1-4) 대신 그의 증손자인 D 그리고 (2-3) 대신 그의 아들인 J와 K, (3-5) 대신 그의 조카인 P가 [그림 2]에 나타난

다. 이는 세대의 흐름에 따라 가구주가 바뀌면서 사회적 연망도 변화됨을 보여 준다. 결국 사회적 연망의 변화는 인구 이동과 세대의 흐름에 기인하고 있다.

30년간의 사회적 연망 차이로 인하여 사회적 연망의 중심도 변화하였다. [그림 3]과 [그림 4]는 각 성씨별로 여성의 흐름을 나타냄으로써 1864년과 1894년의 사회적 연망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¹¹⁾



[그림 3] 1864년 사회적 연망



[그림 4] 1894년 사회적 연망

[그림 3]은 풍천 임씨가 사회적 연망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 준다. 달밭 마을 풍천 임씨는 모두 권당관계에 있으면서 고부 이씨3, 청주 정씨

11) [그림 3]과 [그림 4]에서 화살표의 방향은 여성이 이동한 방향을 의미한다. 즉, '김해 김씨→진주 강씨'는 김해 김씨의 여자가 진주 강씨의 남자와 결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로 표시된 성씨는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성씨임을 나타낸다.

로부터 여자를 받고 다시 고부 이씨2와 전주 이씨 그리고 진주 강씨2에게 여자를 줌으로써 5개의 성씨와 혼인을 통한 켤당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중 청주 정씨와 고부 이씨3 그리고 전주 이씨는 마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로서 풍천 임씨는 마을에 거주하는 성씨로는 고부 이씨2 및 진주 강씨2와 사회적 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고부 이씨 중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고부 이씨2는 풍천 임씨와 여자를 주고 받음으로써 껍사돈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 뿐 다른 성씨와는 켤당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림 3]의 사회적 연망은 30년 뒤에 [그림 4]로 변화되었다. [그림 4]에서는 고부 이씨2가 사회적 연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풍천 임씨는 [그림 3]에서 켤당관계를 맺고 있던 성씨 중 진주 강씨2가 마을을 떠남으로써 관계를 잃게 되었고 청주 정씨는 마을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성씨로는 고부 이씨2 및 청주 정씨와 사회적 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부 이씨2는 풍천 임씨 외에도 마을에 거주하는 청주 정씨, 진주 강씨3 그리고 광산 김씨 등과 혼인관계를 통하여 켤당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남양 홍씨로부터도 여자를 받아 켤당관계를 형성하였다. 30년 사이에 풍천 임씨는 켤당들이 마을을 떠나고 새로운 혼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반면 고부 이씨는 혼인을 통하여 새로운 켤당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였으며 동시에 켤당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로 이주함으로써 사회적 연망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망의 변화는 마을의 중심 세력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1864년까지 마을의 중심 세력이었던 풍천 임씨는 점차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간 반면 풍천 임씨와의 켤당관계를 이용하여 마을에 이주하였던 고부 이씨2는 켤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마을의 새로운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5. 곁사돈관계와 사회적 연망

권당관계를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곁사돈을 맺는 것이다. 두 친족 집단 사이에 하나의 혼인만 성립된 것보다는 둘 이상의 혼인이 성립된 경우가 더 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곁사돈관계는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친족관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즉, 하나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는 하나의 친척관계로 인지되지만 둘 이상의 혼인이 매개되면 복수의 친척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지위와 역할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곁사돈관계에서는 친족관계의 혼란을 피하면서 연망은 강화하는 전략적인 방법이 사용된다.

달밭 마을의 호적중초에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마을 내에서 곁사돈관계가 매우 다양하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곁사돈은 한 번 사돈관계를 맺은 가족이 다시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중첩적인 사회적 연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제주도에서 ‘부찌사돈’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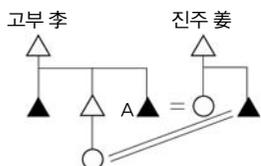
그러나 곁사돈과 부찌사돈은 개념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창기(1999)는 당내친 간의 중복된 혼인관계에 한정하여 곁사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개념에 근거하여 덕수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그는 한 집안에서 여자가 반복하여 다른 집안으로 시집간 경우만 사례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곁사돈이란 개념이 한 집안의 여자가 중복적으로 다른 집안으로 시집간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 집안에서 서로 여자를 주고받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김혜숙(1999)은 부찌사돈의 개념을 이창기의 곁사돈 개념보다 더 넓게 사용하고 있다. 그는 부찌사돈과 곁사돈의 관계를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의 구분은 곁사돈은 한 집안의 여자들이 반복해서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는 경우를, 부찌사돈은 두 집안이 서로 여자를 교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는 곁사돈과 부찌사돈을 첫째의 경우와는 반대로 생각

하는 것이다. 셋째는 부찌사돈을 사돈의 켤당으로 보는 것이며, 넷째는 겹사돈과 부찌사돈을 구분 없이 사용하며 이 경우 한 집안의 여자들이 반복해서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는 경우와 두 집안이 서로 여자를 교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는 부찌사돈에 대한 설명 중 네 번째 경우를 가장 지배적인 견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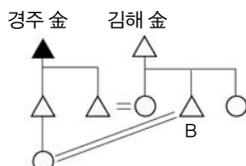
이창기와 김혜숙은 공통적으로 겹사돈과 부찌사돈을 당내집단 또는 부계 혈통집단을 단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달밭 마을에서는 부찌사돈을 ‘이중사촌 또는 고중사촌이 사돈관계를 맺게 된 경우’나 ‘어찌다 보면 사돈이 한 집안과 동시에 사돈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은 부찌사돈이 부계 혈통집단만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켤당이나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을 범주로 하여 형성된 사회적 관계임을 의미한다. 반면 겹사돈은 두 집안이 중복된 혼인관계를 형성한 경우를 말한다. 즉, 부찌사돈은 켤당 또는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한 집단과 사돈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겹사돈은 두 혈통집단 사이에 중복된 혼인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기준에서 1864년의 겹사돈 및 부찌사돈관계를 보면 [그림 5] 및 [그림 6]과 같다. [그림 5]에서는 임씨와 이씨가 세대를 두고 서로 여자를 주고받은 경우이다. 즉, (3-2)와 (2-4)는 7촌 조카와 6촌 여동생이 결혼하여 서로 사돈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음 세대에서 다시 손녀와 7촌 조카를 결혼시킴으로써 중복된 사돈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두 번의 혼인으로 겹사돈이 된 풍천 임씨와 고부 이씨는 강력한 사회적 연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원칙이 비교적 느슨하게 작용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으나 이는 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8] 1894년의 검사돈관계 2



[그림 9] 1894년의 검사돈관계 3

검사돈과 부찌사돈은 비슷한 관계이지만 그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즉, 검사돈은 두 친족 집단 간 결속력을 강화하는 수단이지만 부찌사돈은 사회적 연망을 확장하는 수단의 성격을 갖는다. 고부 이씨와 풍천 임씨가 검사돈관계를 형성한 것에서 보듯 검사돈은 마을의 핵심 세력들이 서로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마을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반면 부찌사돈은 권당의 사돈이나 사돈의 사돈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관계의 망을 확장시켜 인식하는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검사돈은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관계이지만 부찌사돈은 스스로 사돈관계를 맺는 것이라기보다 권당이나 사돈이 사돈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사돈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수단이 된다.

풍천 임씨들에 비해 나중에 달밭 마을로 이주한 고부 이씨는 초창기에는 풍천 임씨와 검사돈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마을의 핵심 세력으로 진입하였고, 이후 부찌사돈관계를 확장함으로써 풍천 임씨를 밀어내고 마을의 중심 세력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6. 맺음말

제주도에서 사회적 관계의 핵심은 켤당이다. 켤당은 혈통과 혼인으로 맺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마다 켤당의 범위는 서로 다르다. 켤당은 제주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켤당은 노동 교환을 하는 대상이며 정치적 지지의 대상이고 사회관계를 맺어가는 핵심적인 대상이다. 따라서 켤당을 이해하는 것은 제주 문화를 이해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켤당에 대한 연구는 개념 논의에만 머물러 있었다. 켤당이 제주 문화의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면서도 켤당관계망에 대한 분석이나 그것이 정치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호적중초라는 문헌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켤당관계망을 분석하고 켤당이 정치적 자원으로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인 달밭 마을에서 마을 구성원들은 켤당관계로 서로 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1864년에는 전체 17가구 중 12가구가 그리고 1894년에는 전체 27가구 중 16가구가 켤당관계로 맺어져 있을 만큼 켤당은 사회관계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켤당관계는 평등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중심과 주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을 주민과 중복된 혼인망으로 구성함으로써 켤당관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두 가지의 약한 혼인관계로 연결된 사람도 있었다. 이는 켤당이 마을 내 정치권력의 지형과 영향력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켤당관계의 망을 분석하면 누가 사회관계의 중심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1864년에서 1894년 사이의 30년 차이를 두고 달밭 마을의 켤당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마을의 중심 세력이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달밭 마을은 1800년대 중반

이후 인구 이동이 매우 활발하였다. 호적중초를 통해서 보면 기존의 가구가 이주해 나가고 새로운 가구가 이주해 오는 빈도가 매우 빈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구성원들은 권당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인구의 이동이 권당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구의 이동과 세대의 교체로 권당관계망은 변화되었다. 권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은 인구 이동과 세대의 교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당관계망의 변화는 혼인과 인구이동에 의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주민들의 의식적인 정치 과정으로도 이해될 필요가 있다. 마을에서 위세와 영향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과 권당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주변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도 폭넓은 권당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겹사돈과 부찌사돈을 통해 나타났다. 겹사돈은 이미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과 다시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인 연망을 강화하는 것이며 부찌사돈은 사돈의 사돈으로서 혼인관계망을 확장시켜 인식하는 것이다. 마을 내에 겹사돈과 부찌사돈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는 혼인 연망의 중심에 있을 수 있으며 영향력과 위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치 과정에 의해 달밭 마을의 중심인물은 풍천 임씨에서 고부 이씨로 변화되었다. 1864년의 달밭 마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중심에는 풍천 임씨가 있었고 고부 이씨는 풍천 임씨와의 권당관계를 매개로 마을로 이주한 상태였다. 이주한 이후 마을 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시도한 고부 이씨는 풍천 임씨들과 겹사돈을 맺음으로써 위세와 영향력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1894년에는 마을 사회관계망의 중심이 고부 이씨로 변화되었다. 고부 이씨들은 혼인을 통하여 권당관계를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부찌사돈을 활용하여 사돈관계의 범위도 확장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고부 이씨들은 권당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달밭 마을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

달밭 마을은 고부 이씨가 우월한 위세를 가진 마을로 인식되고 있다.

호적중초를 통한 권당관계의 변화 연구는 권당관계망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료 자체가 가지는 한계로 사회의 실제상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한계는 호적중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료 비판이 이루어짐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 권당 연구는 집단의 관점이 아니라 범주의 관점에서 친족을 연구함으로써 개인 중심의 친척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친족 연구에 주목하게 한다. 한국 친족에 대한 부계 혈통집단 중심의 연구는 개인을 친족집단 구성원으로 인식함으로써 구조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 존재로만 인식해 왔다. 반면 개인 간 관계에 초점을 둔 권당 연구는 개인을 구조에 비교적 자유로운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인의 전략과 적응양식이 강조될 수 있다. 따라서 권당 연구는 부계 혈통집단 연구와 함께 한국 친족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에서 권당이 중요한 문화요소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의 모든 친족현상을 권당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재산의 상속과 분할, 제사의 상속과 분할, 가족공동묘지의 조성, 뛰어난 친족이라는 상징적 자원의 소유 등의 영역에서는 부계친이 여전히 중요하게 기능한다. 달밭 마을에서 고부 이씨들이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마을 풍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친족집단으로서 고부 이씨가 강조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친족은 집단으로서의 친족과 범주로서의 권당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개인이 집단으로서의 친족과 범주로서의 권당을 어떤 맥락에서 문화적 자원으로 동원하고 활용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제주도 친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오정, 2003, “19세기 제주도 촌락의 촌락내혼률과 촌락내 혼인관계 연구,” 『제주도연구』 23: 155-194.
- 김동진, 1995,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 구조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8, “인구와 호적,” 역사문화학회 편, 『지방사연구입문』, 민속원.
- 김창민, 1992, “범주로서의 친족: 제주도의 권당,” 『한국문화인류학』 24: 95-115.
- _____, 2010a, “호적증초를 통해서 본 19-20세기 제주도 마을의 권당 관계,” 『비교문화연구』 16(1): 195-214.
- _____, 2010b, “호적증초에 나타난 19세기 제주도 가족과 가구의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371-396.
- 김혜숙, 1999, 『제주도의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출판부.
- 이창기, 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출판부.
- 전경수, 1983, “서평: 제주도의 친족조직,” 『진단학보』 55: 209-217.
- 정수환, 2003, “19세기 가솔의 성격과 제주사회: 『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증초(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3: 195-246.
- 허원영, 2003, “19세기 제주도 호적에 나타난 직역 변동과 부세운영: 『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증초(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의 직역(職役)기록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3: 277-319.

Keesing, Roger, 1975, *Kin Groups and Social Structure*, Holt, Rinehart and Winston,

Abstract

(Key words): Jeju Island, *Kwendang*, social ties, *Hojoekjungcho*, marriage

Change of *Kwendang* Relation in a Village on Jeju Island

Kim, Chang Min*

This study provides an analysis of a social relationship and its changes in the 19th century in a village located on Jeju Island. I studied how changes in the *kwendang* relationship and the cultural meaning of *kwendang* took place by analysis of changing patterns of marriage ties in the village from the 1860s until the 1890s.

Kwendang is the core social relationship in the society of Jeju Island. *kwendang* is the social relationship made by blood ties and marriages. *kwendang* is a very important cultural element of Jeju islanders when they exchange labor and make political alliances; these social relations are the basis of *kwendang*. In this context, to understand *kwenda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Jeju. I understand *kwendang* relationships and their changes by analyzing *Hojoekjungcho* which is a written record which was kept to record information about populations, marriage and fami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two fold.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Liberal Art, Jeonju University

First, though population mobility in the 19th century Jeju village was very high, villagers were related by *kwendang*. Even though *kwendang* relationships were changed by population mobility and change of generation, they reorganized *kwendang* relations and had strong socialities.

Second, the dominant family of the village was changed by *kwendang* relationships. In 1864, the *Lim* family occupied the dominant position in the village and the *Lee* family immigrated to the village with the *kwendang* relation to Lim. After that, the Lees made many *kwendang* relationships to the villagers and gained a dominant position in the village. According to this study, *kwendang* can be understood as a key cultural element for attaining political power and social ties in historical Jeju villages.

